〈법화경〉공덕으로 천안통 천이통 얻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㉘ 육근의 공덕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常精進) 보살마하살에게 이르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거나 외우며 해설하거나 쓴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눈의 800 공덕과 귀의 1200의 공덕과 코의 800 공덕과 혀의 1200 공덕과 몸의 800 공덕과 의근(意根)의 1200의 공덕을 얻게 되리니 이러한 공덕으로 육근을 모두 장엄하여 청정하게 하리라.

이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육안(肉眼)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에 있는 모든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게 될 것이며, 아래로 아비지옥과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의 온갖 중생과 그들의 업연(業緣)과 과보로 태어나는 곳을 다 보고 알게 되리라.

또 상정진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며 해설하거나 쓴다면 귀의 1200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귀로 삼천대천세계의 아래로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온갖 말과 소리를 들으리라.

요약해 말하건대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에 있는 모든 소리를, 천이통을 얻지 못하고도 부모가 낳아준 보통의 청정한 귀로써 모두 듣고 알 것이며, 이렇게 온갖 소리들을 분별하여도 귀가 상하지 않게 되리라."

'법사공덕품' 에는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서사 해설하는 인연으로 육근공덕(六根功德)이 완전하게 된다는 내용이 설해져 있다. 육근공덕은 〈능엄경〉에도 설해져 있는데 최극(最極)의 수준에서 발휘되는 각 근(根)의 기능을 말한다. 여기에 공덕의 수치를 800과 1200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눈의 800 공덕과 귀의 1200 공덕이 수치의 극점에 이르러, 천안통이나 천이통이 아닌 부모에게서 몸 받아 태어난 얼굴의 눈과 귀로도 천안통과 천이통 같은 보고 듣는 시청(視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초능력 이야기로 여겨지는 말인데 육체적 감각이 본래 특정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가령 사람마다 시력이 다르다.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 냄새를 맡는 능력 등이 제각기 다르고 동물이 사람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다. 또 사람의 시력이나 청력이 인종(人種)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수도 있다 한다. 경의 말씀은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아닌 육근의 본래 공덕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화경〉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말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승묘법(一乘妙法)이다. 일승묘법이란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주의 통일적인 진리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조화통일을 이룬 하나의 이치다. 〈법화경〉은 이것을 설한 경전이다. 둘째 구원실성불(久遠實成佛)이다. 인격적 생명으로서의 부처님은 언제나 인간 현실의 생활환경을 뛰어넘어 초월적 존재로 계신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오온(五蘊)으로 화합된 육체적 생명이 아닌 법신의 생명으로 이 법신이 의인화된 인격이 부처님이다. 셋째 보살행(菩薩行)이다.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문이라고 경문에서 밝혔듯이 현실 속에서의 해야 하는 인간적 활동을 보살행으로 설명했다. 보살행이란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서로 이해하며 도우며 협동하여 살라는 말이다. 이 세 가지가 '법화사상'을 이루어 시대에 따라 연구되고 그 교설이 발전되어 왔다.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논서인 용수보살이 지은 〈대지도론〉과 견의보살(堅意菩薩)이 지은 〈입대승론〉 그리고 세친이 지은 〈법화론〉 등에 〈법화경〉을 인용 주석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이 논서들은 본래 인도에서 저술된 것들이지만 범본이 유실되고 한역본만 전해지고 있다.

법화사상은 중국에서 꽃을 피운다.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가 법화사상을 완성하고 천태종이란 종파를 세운 이후 〈법화경〉이 크게 유통되었다. 대승경전의 삼대(三大) 경전인 〈화엄경〉은 불법(佛法)의 통일성, 〈법화경〉은 영원성, 〈열반경〉은 순수성을 설해 놓은 경전들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④ 괴로운 이 세상 어떻게 살까요?

괴로움 원인 버리는 실천해야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모두 다 괴로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苦海)라고 합니다. 3000년 전 석가모니부처님께서도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설산으로 출가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과 열반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아직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괴로움의 세상인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괴로움의 진리도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도 모르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괴로움의 진리와 열반(행복)의 진리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두 가지 진리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괴로움의 진리요 또 다른 하나는 해탈 열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윳따니까야〉에서, 괴로움의 진리를 벗어나 행복의 진리를 실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또한 "괴로움이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진리를 철저히 알고, 괴로움을 철저히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괴로움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없는 상태', 즉 해탈과 열반의 행복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처님, 중생 苦 해결 위해 출가·수행·열반
괴로움의 진리 철저히 알고 철저히 소멸해야
중생은 부처님처럼 깨닫지 못해 苦 못 벗어나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운 고통의 삶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는 삶이기에 괴로움의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지어서 현재에 받는 과보임으로 연기법의 인과법칙에서 볼 때 괴로움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괴로움이 모두 소멸된 완전한 열반의 자리, 궁극적 열반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역시도 괴로움의 원인들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실상의 자리, 진리의 자리, 열반의 자리 그 자리도 역시 인과법칙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괴로움의 진리세계와 열반의 진리세계라는 두 가지의 진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영원한 행복세계인 열반의 진리세계는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괴로움의 진리세계만 겪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청정도론(淸淨道論)〉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알아야 할 바인 고성제(苦聖諦)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인 도성제(道聖諦)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인 집성제(集聖諦)을 버렸기 때문에, 바라문이여,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괴로움의 진리를 완전히 아시고 또한 괴로움의 원인들을 철저히 버리는 올바른 수행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어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인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괴로움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버려야 할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움의 원인들을 소멸하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지 못하고 중생이 되어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괴로움을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처럼 괴로움의 진리와 열반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괴로움의 원인들을 철저히 버리는 올바른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보살, 貪·瞋·癡에 물들지 않아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㉘ 재가 보살계

여러 대승 경론에서 보살계가 설해지지만, 대승 보살계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유가계(瑜伽戒)에 설해지는 삼취정계(三聚淨戒)를 꼽을 수 있다. 모든 보살을 대상으로 하는 보살계에는 3가지 구성요소인 율의계(律儀戒)·섭선법계(攝善法戒)·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보살은 불교교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깨달음을 위해 온갖 선을 적집(積集)해야 하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가 보살은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불가피하게 선교방편(善巧方便)을 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몸과 입으로 짓는 7가지 악행은 용납될 수 있지만, 악한 의지 또는 악한 마음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보살의 마음은 탐욕[貪]·성냄[瞋]·어리석음[癡]이라는 번뇌에 물들지 않아야만 한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면 중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섣불리 선교방편을 행해서는 안 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대승 보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재가 보살은 출가 보살과 달리 세속의 인연에 얽매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전이 바로 5세기에 담무참(曇無讖)에 의해 한역된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이다. 이 경전에서는 재가의 남성 신자인 우바새가 지켜야 할 계를 설하는데, 사위국(舍衛國)의 선생(善生)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에게 설해진 것이어서 '선생경(善生經)' 이라고도 한다.

언뜻 보면 이 경전은 초기불교 경전인 〈장아함경(長阿含經)〉 가운데 〈선생경(善生經)〉, 안세고(安世高)가 한역한 〈시가라월육방예경(尸迦羅越六方禮經)〉, 지법도(支法度)가 한역한 〈선생자경(善生子經)〉, 축법호(竺法護)가 한역한 〈대육향배경(大六向排經)〉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과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전에서는 재가 보살 중심의 보살계가 설해지지만, 〈보살선계경〉에서는 출가 보살 중심의 보살계가 설해지기 때문이다. 즉, 재가 보살은 6가지 중계[六重]를 지켜야 하지만, 출가 보살은 8가지 중계[八重]를 지켜야 한다고 설한다. 따라서 두 경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충하는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경전의 '수계품(受戒品)' 에는 재가 보살계의 수계작법이 보이는데, 여기에 재가 보살이 지켜야 할 계인 6가지 중법(重法)과 28가지 실의죄(失意罪)가 설해진다. 우선 재가 보살은 ①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②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며, ③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⑤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하며, ⑥술을 팔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경계(輕戒)에 해당하는 28가지 실의죄가 나열되는데, 여기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항목과 육재일(六齋日: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을 지키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요익유정계와 유사한 항목으로는 병든 이를 잘 보살피는 것, 구걸하는 이를 도와주는 것, 길 가다가 병든 이를 보거든 버리고 가지 말 것 등이 있다.

이 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분수(分受)라고 할 수 있는데, 재가 보살이 받아 지키는 계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즉, '만약 삼귀의(三歸依)를 받고서 1계를 받아 지킨다면 일분(一分)이며, 2계를 받아 지킨다면 소분(少分)이며, 3계나 4계를 받아 지킨다면 다분(多分)이며, 5계를 받아 지킨다면 만분(滿分)' 이라고 설한다. 이는 재가 보살에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지킬 수 있는 만큼의 계를 받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 마이크가 일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매우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으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5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